

# 나의 삶을 위로하는 외갓집

이성영

2021년 8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외할머니댁에 갔다.

어려서는 일주일의 반은 외가에서 보냈는데, 점점 커갈수록 그 횟수가 줄더니,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부터는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러다가 뭉치럼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히 2박 3일 동안 있기로 한 것이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외가가 있는 강화로 서둘러 출발했다. 아니 근데 뜻하지 않게 외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촌 동생들이 있었다. 엄마께서 나와 동생에게 써프라이즈를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추석도 설날도 연달아 만나지 못했던 사촌 동생들을 일 년 만에 만나니 굉장히 반가웠다. 사촌 동생들은 방학동안 일하시는 외숙모 덕분에 외할머니댁에 있을 거라고 하였다.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사촌 남동생 그다음에 내동생 그다음에 막내 사촌 여동생까지 모두 1살차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주 만나고 같이 놀고 자라서 그런지 엄청 친하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1번!2번!3번!4번!" 하고 번호로 부르신다. 어려서는 넷이 할머니 댁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많이 놀았는데. 이제는 다들 학교에 학원에 각자의 삶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나마 간간이 주말에 가서 볼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 못 만난 것이다.

여하튼 우리 4총사의 행복한 2박 3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더군다나 방역 수칙 때문에 엄마도 없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우리만의 시

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와우~ 해방이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4남매는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텔레비전도 봤다. 무엇보다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집에서 마구마구 뛰기가 가능했다. 또 마당에 나가서 동네 마을을 막 뛰어다니며 놀고, 그 동안 못 했던 사진도 많이 찍었다.

우리 넷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중 하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외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강화 시골에 있어서 밖에 나가면 외가 밭이랑 인근 산이 보인다. 또 할머니댁 2층 테라스에 나가서 보면 하늘도 너무 이쁘다. 무더위에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우리 4총사는 푸르른 산도 논도 밭도 나무도 꽃도 많이 많이 찍는다. 풍경을 찍는 것 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아파트 창문을 열면 집 앞을 달리는 고약한 자동차 매연 냄새와 높은 아파트 사이에서만 살다가 푸른 하늘과 푸르른 숲이 보이고 파릇파릇한 풀 냄새가 느껴지면 내 몸 속 깊이 까지 정화되는 것 같다. 또 시골은 번잡하고 복잡한 도시와는 달리 고요하고 조용하다. 밤이 되면 조명이 아닌 밤하늘의 별과 달이 보였고 새벽이면 자동차 클락션이 아닌 어김없이 울어주는 닭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비가 오면 2층 거실에서 통창을 통해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오랜만에 보내는 할머니댁에서 새벽에 부는 시원한 바람과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나에게 “안녕, 그동안 많이 그리웠지?”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상쾌한 새벽 공기에 중학교에 막 입학하고 한 학기를 보내며 보낸 나의 긴장과 걱정, 무게감을 다 털어 놓는 기분이었다. 1번이라고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서일까? 도시 속에서 느껴보지보지 못한 편안함과 포근함이 더 느껴졌다. 힘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짧은 여름 방학 특별 휴가는 끝이 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업의 중압감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난 오늘도 기대한다. 다음 방학에 다시 특별휴가를 얻어 외가에 갈 것이다.

나의 눈과 몸을 편안하게 해 줄 흙이 있고, 푸르른 풀과 나무, 산이 있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연이 있는 외할머니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내 편 언제나 나를 위로 해 주시고 언제나 무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삶의 위로가 되는 외갓댁이다.